

조선조 시가 문학에 나타난 가족의 일상

임주탁(부산대)

1. 머리말
2. 본성적 가족 사회 질서로 치환된 가족의 일상과 시조 문학
3. 치환된 가족의 일상 뒤집기와 가사 문학
4. 마무리

1. 머리말

문학에서 ‘일상’을 중시하는 것은 근대적 담론의 하나이다. ‘일상’에 대한 관심은 ‘본성’ 또는 ‘본질’에 대한 논의의 현실적 공허함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한다. 최근 인문학의 다방면에서 높아지고 있는 ‘생활사’에 대한 관심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생활사’에 대한 관심은 ‘전형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이다. 개별자와 개별자 사이에 공통된 삶의 궤적보다는 개별자의 하루하루의 생활의 양상을 재구할 수 있다면, 문학 연구는 현실적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양의 근대철학에서 ‘일상성’은 극복되어야 할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일상성’이란 ‘현존재(Dasein)’의 평균적이고 반복적인 생활 태도를 말한다. ‘현존재(Dasein)’는 무가치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世人(das Man)’으로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대부분의 ‘현존재(Dasein)’는 ‘일상성’에 사로잡혀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상성’은 ‘현존재(Dasein)’의 본질적·본성적 모습이 아니므로, ‘현존재’는 ‘일상성’에서 벗어나 본래적·본성적 모습을 회복하는 과제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상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철학적 기반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일상’에 대한 관심과 연구 또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질론’ 또는 ‘본성론’을 축으로 하는 거대 담론이 미시 담론을 지배한 것이 서양의 근대 학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일상’, ‘생활사’, 미시 담론 등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이와 같은 근대학문의 경향에 대한 반발이자 반성인 셈이다.

이번 학술대회의 기획 주제도 이러한 반발 혹은 반성과 일정하게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학 행위 주체들의 ‘일상’이 문학 창작의 현실적 토대가 되는 만큼 개별자의 구체적인 ‘일상’의 복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가 문학 연구가 ‘본성론’이나 ‘본질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은 서양 근대철학에서 범주화된 ‘일상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자리하고 있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시가 문학은 ‘세인’의 평균적이고 반복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본질적이고 본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과정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시가 문학을 통해 문학 주체들의 ‘일상’을 해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일상’의 범위를 ‘가족’에 한정할 때 그러한 어려움은 배가된다. 전통 사회에서 ‘가족’은 국가 사회의 기본 단위이고, 전통 사회의 지배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유가적 통치 원리의 기본 골격이 가족 질서 원리이기 때문이다.¹⁾

‘가족’은 미시 담론의 질료가 아니라 언제나 거시 담론의 질료였고, ‘일상성’을 띤 ‘가족’의 삶은 부정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더욱이 이 글의 대상인 조선조 시가문학은 유가적 통치 원리를 유지하고 인간과 세계의 본성 또는 본질을 탐색하여 국가 사회 질서 원리의 철학적 근거를 밝히고자 하였던 ‘士族 出身 官僚’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런 까닭에 조선조 시가 문학에서 가족의 ‘일상’ 혹은 가족적 삶의 ‘具體相’을 보여주는 작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조선조 시가 문학에서 가족의 일상의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조선조 시가 문학에서 ‘世人’의 ‘일상성’을 극복하는 정신적,

1) 이에 대해서는 임주탁, 「鄉歌 전통에서 본 <思母曲>의 主題」, 『韓國民族文化』 21(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2003.4), 1~19면을 참조할 것.

실천적 노력이 문학 주체들의 ‘일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상성’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과정에서 ‘일상성’을 드러낸 작품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규범화된 가족의 일상’과 아울러 ‘일상성을 띤 가족의 일상’을 아울러 파악할 수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2. 본성적 가족 사회 질서로 치환된 가족의 일상과 시조 문학

조선시대에 가족이라는 사회는 수직·수평적인 인간관계들이 공존하는 사회였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그 관계의 중심에 父(+男性+年長者)가 자리한다. 당연히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주축을 이룬다. 이러한 가족 사회의 형식은 가족 외적인 인간관계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서 비롯한다. 가족 사회가 국가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 사회와 결속되어야 하는바, 국가 사회의 인간관계가 남성 중심인 사회에서 그 결속의 주체 또한 국가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진 남성이 되게 마련이다.

이름을 남긴 시조 작가의 대부분은 ‘士族 出身 男性’이다. 사족 출신 남성은 가족 사회를 국가 사회와 결속시키는 매개가 된다. ‘科擧’라는 인재 등용 제도는 따지고 보면 국가 사회에서의 개별적인 가족 사회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는 셈이다. 아무리 개인적인 정서와 사상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사족 출신 남성 작가의 문학으로서 시조는 ‘관료’ 문학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시조는 사적 담론이면서도 공적 담론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이다.

국가 사회는 ‘士族 出身 男性’에게 가족 질서의 수립과 유지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인물이라야 국가 사회의 질서 체계를 조화로운 상태로 유지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과거’를 통한 出仕는 한편으로는 사족 출신 남성 자신의 가족 사회를 보장받는 방법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주역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 과정이다. ‘가장’으로서 가족 사회의 조화로운 질

서를 유지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는 국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주역으로서의 자리를 보장받기 어려워진다.

그 자질과 능력은 부단한 ‘자기 수양’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공무에 시달리다 잠시 여가를 얻은 시간에 酒色에 빠져드는 인물이 없지 않았으나 그런 인물은 경계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시조 문학에서의 음주는 대부분 자기 절제를 수반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조 문학의 작가들은 잠시 머리를 식히는 시간에도 다음 시조 작품에서와 같이 끊임없이 ‘無慾心’을 위한 수양에 정진하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山頭에 閒雲이 起호고 水中에 白鷗이 飛이라
無心코 多情호니 이 두 거시로다
一生에 시르물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1426, 李賢輔)²⁾

이 작품의 제1, 2행은 天·地·人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세계를 그리고 있다. 山과 水는 地的 요소이고, 閒雲은 天的 요소이며, 白鷗는 人的 요소이다. 제1행은 地的 요소와 天的 요소가 어울리고 地的 요소가 人的 요소와 어울리고 있는 형국을 그리고 있으며, 제2행에서는 이러한 어울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無心’과 ‘多情’임을 말하고 있다. 無心은 욕심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 상태라야 세계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으며, 또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多情’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배어나고 있다. 제3행의 ‘노로리라’의 주체인 작가는 여전히 ‘시름’을 갖고 있는데, 이 시름이 그로 하여금 제1, 2행에 형상화된 조화로운 세계에 어울릴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화자는 ‘시름’을 잊는 ‘자기 수양’을 통해 조화로운 세계 속에서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物我一體’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정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작품에서 작가(=화자)는 여전히 그런 경지에 도달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시조 작가들이 자신이 그와 같은 경지에 도달한 것으로 노래하였다

2) 괄호 안의 번호는 沈載完 편, 『歷代時調全書』(世宗文化社, 1972)에서 부여한 작품 번호이다.

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조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微吟緩步(혹은 逍遙), 釣魚 등의 행위는 한결같이 수양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 통치 이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조화로운 사회 질서(cosmos)의 수립과 유지이다. 노래 문학으로서 시조는 사람의 내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계 사이의 부조화[不和]를 조화로운 상태[和]로 회복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질서의 수립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시조 작가들이라고 만드시 국가 사회나 지역 사회의 부조화와 갈등에서만 시름을 겪지는 않았을 터인데, 시조 작품에 드러나는 ‘시름’은 한결같이 그와 같은 부조화와 갈등과 연관되어 있을 뿐, 가족 사회의 부조화와 갈등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자기 가족 내의 부조화와 갈등은 노래로 표현할 만큼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까닭일 수도 있고, 실제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라 하더라도 노래라는 그릇으로 담아낼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사족 출신 남성의 한시에는 가족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가족의 문제(죽음의 문제를 포함하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 적지 않은 데 반해 시조 문학에서는 그러한 면모를 찾기 어렵다면 시조 문학은 한시와는 사뭇 다른 갈래라는 인식이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 시조 작품은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너 ㅁㅁ 돌 더 업서 歌辭를 製作하니
 正大君子는 다 올타 하니만는
 엇더타 蔽日浮雲類는 이도 외드 하니다(565, 姜復中)

이 작품은 노래가 사적 담론의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담론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歌辭’는 곧 노래이다. ‘돌 더’ 없는 ‘ㅁㅁ’은 내면적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부조화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작가는 노래를 지었다. 그런데 그 노래에 대해 ‘正大君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비해 해를 가리는 뜬구름 같은 인간으로 비유된 인물들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객관적인 是是非非를 가릴 수는 없지만 이 작품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 작가의 노래 제작이 개인 차원에 머물

지 않고 타인의 관심과 품평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벽장 속에만 감추어둘 요량으로 지은 노래라면 그것은 노래가 아니다. 노래는 연행을 통해 불리어질 때 비로소 노래가 된다. 사족 출신 남성 작가들이 노래를 부르는 공간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듯하다. 하나는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류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연행되는 노래는 공적 담론의 성격이 한층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거의 대부분이 관료이거나 官職에는 있지 않으나 品職은 갖고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 공간에서의 불리는 노래는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성격을 한층 강하게 띠기 마련이다.

또 하나는 가족 사회가 유지되는 공간이다. 사족 출신 남성이 가장이 되는 가족 사회는 혈연적 공동체인 듯하지만, 지배와 피지배의 역학 관계도 존재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종’이라는 주인에 예속된 신분은 첫째 공간에 흔히 부수되는 ‘歌妓’ 혹은 ‘官妓’와 같은 신분이 그러하듯이 노래 연행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하다. 시조 작품에 흔히 등장하는 ‘아희’, ‘兒孩’는 그런 신분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다. 이런 공간에서 부르는 노래는 ‘教化’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다음과 같이 첫째, 둘째 공간의 성격이 복합된 공간이다.

칠월 그믐은 내 생일이다. 아들 손자들이 늘 이 날에 잔치를 열어 나를 위로해 주었다. 신해년 가을에는 따로 성대한 잔치 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고을 부로와 사방 이웃 고을의 守宰들이 다 모여 차림새를 크게 하였다. 차례로 일어나 술을 주고받다가 마지막에는 취하여 춤을 추었는데, 각자 노래를 불렀다. 나도 화답하였는데 이 노래가 그 때 지은 것이다.³⁾

李賢輔가 자기 생일날에 <생일가>를 지은 연유를 설명하고 있는 이 글에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노래 연행 공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잔치 자리의 노래로 자리하는 한 시조는 사적 담론을 담

3) 七月晦日, 是翁初度之辰. 兒孫輩, 每於此日, 設酌以慰翁. 辛亥之秋, 別設盛筵, 鄉中父老·四隣邑宰, 俱會, 大張供具. 秩起酬酌, 終至醉舞, 各自唱歌. 翁亦和答, 此其所作也. 李賢輔, 「生日歌序」, 『壘巖集』(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17), 416면.

아내는 그릇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잔치 자리에서 지어 부른 노래가 다음과 같이 君恩에 고마움을 표하는 것으로 종결된다는 것은 시조 문학이 국가 사회의 단위로서의 지역 사회, 지역 사회의 단위로서의 가족 사회의 연쇄적인 공간에 존재하였음을 말해 준다.

功名이 그지 이실가 壽夭도 天定이라
 金犀씩 구분 허리에 八十 逢春 기 몇 회오
 年年에 오뉘나리 亦君恩이샀다(247, 李賢輔)

노래 문학으로서의 시조가 이러한 연행 공간의 특성에 제약을 받았다면 시가 작품에서 가족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의 자취를 찾기 어려운 까닭을 좀 더 짚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조 문학은 근원적으로 가족 사회의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는 일상사’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조 문학에서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世人’으로서의 ‘가족’보다는 본질적이고 본성적인 모습으로서의 ‘가족’에 대한 관심이며 그것은 ‘일상화되어야 하는 규범적 관계’가 맺어지는 ‘조화로운 질서가 구현된 가족의 삶’에 대한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사족 출신 남성 작가들이 다음과 같이 가족 사회의 행동 규범을 담아내는 것은 가족 질서 원리를 국가 사회 질서 원리로 확대 적용하는 유가적 통치 원리에 따라 노래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노래를 제작한 까닭이라 할 수 있다.

江原道 百姓들아 兄弟 송스 ㅎ디 마라
 종뵈 맞뵈는 엇기에 쉽거니와
 어뵈 가 또 어들 거시라 흘긔할긔 ㅎ는다(108, 鄭澈)

형아 아이야 네 술홀 만져 보아
 뉘손뵈 타나관뵈 양즈조차 ㄱ뜩손다
 ㅎ젓 먹고 길러나이셔 ㄷㅅㅅ을 먹디 마라(3242, 鄭澈)

일 니러 洗手호고 父母의 問安호고
 左右의 되와 이서 恭敬호야 섬기오디
 餘暇의 글 비화 넘어 못 밋출 듯호여라(2426, 金尙容)

자신이 속한 가족 사회 바깥의 인간들에게 형제간의 행동 규범을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작가 자신과 그를 포함한 자신의 가족들이 가족 사회 안에서 그 규범을 체현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노래를 통한 ‘教化’는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다. 물론 鄭澈이 가족 사회 내에서 이와 같은 행동 규범을 실천하며 자랐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의 성품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단순히 政敵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작가 스스로 ‘修身’과 ‘齊家’의 과정을 거친 인물임을 자처할 수 있을 때 이와 같은 행동 규범에 따르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은 분명하다.

金尙容의 작품은 학생이 가족 사회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행동이 사족 출신 작가들이 관료가 되는 과정에서 거치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면 이러한 작품 또한 가족의 일상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사족 출신 남성 작가의 시조 문학에 나타난 ‘일상’은 현대 담론에서 보이는 일상에 대한 관심과는 사뭇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가족 질서 원리를 국가 사회 단위로 확대하자면 무엇보다 가족 사회는 조화로운 질서의 具現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족 사회와 국가 사회를 결속하는 매개로서의 사족 출신 남성들은 자신의 가족이 그러한 질서 속에 있음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가족 사회의 일상이 부조화와 갈등이 존재하거나 보잘것없는 모습을 띠고 있는 한 그는 국가 사회의 조화로운 질서를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주체로 나설 수 없었던 것이다.⁴⁾ 그런 까닭에 그들의 담론 형식으로서의 시조 문학에서 가족의 일상은 본성적인 인간의 삶인 동시에 본질적인 세계의 모습으로 치환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⁵⁾ 따라서 시조 문학에서 추론할 수 있는 가족의 일상은

4) 이것이 사족 출신 남성에게 부여된 ‘성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가족의 일상의 대척점에 자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조 작가들의 ‘일상성’에 대한 시각은 서양의 근대 철학자들(가령, 하이데거)의 시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치환된 가족의 일상 뒤집기와 가사 문학

가사 문학은 시조 문학과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족 출신 남성 작가의 작품은 시조 문학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장르적 개방성’이 비록 근대적인 담론으로서의 ‘일상성’은 담아내지는 못하지만, 여성적 목소리를 통해 가족 사회의 이면까지도 담아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어려워라 어려워라 기다리기 어려워라. 기달인들任이 오며 온다 혼들 제
 뉘 알니. 안이 올 줄 알것마는 흥여 올라 기다린다. 기다리지 마즈 혼들 생각
 이 안 날소냐. 任은 이리 無情호디 나는 어이 有情호고 任의 마음 날 곳호면
 그덧 혼순 오시련만 어서 신발 소리(릭) 귀에 錚錚 들리는 듯. 이제야 오시는
 가 반가이 迎接고져 顛倒이 나아가서 前程을 슯혀보니 길가는 스람들의 지나
 가는 발자취라. 그리든 任 보려호니 形容이 杳然호다. 서어이 문을 닷고 哀然
 이 드러오니 夕陽은 지를 넘고 落花는 滿庭이라. 寂寞호 빈 방안에 凡然이 홀
 노 안즈 紗窓을 半開호고 任 계신 곳 바라보니 萬里長空에 구름조츼 愴望호
 다. 이니 八字 엇지 홀고. 長歎息뿐이로다. 獨宿空房 寡婦인들 나에서 더홀소
 냐. 첨아 슯헤 우는 시야 終日 哀怨 호지 말고 任 계신 곳 츠즈가서 나의 所懷

5) 시조 문학과 일상성의 관계를 다룬 논문으로 신연우, 「日常性的 文學으로서의 時調」, 『溫知論叢』 第2輯(溫知學會, 1996.1), 121~144면을 들 수 있다. 그는 시조 문학이 “자연의 질서를 생활에서 본받고, 그것을 인간 내면으로 심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143면)고 보았는데, 여기서 자연의 질서란 다름 아닌 ‘자연의 일상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일상성’이 자연적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근대적인 담론으로서의 ‘일상성’ 담론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인간이 경험하는 자연은 객관적 설명 가능성보다는 모순투성이고 우연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조 작가들에 의해 인식된 ‘자연’은 규범적이고 규칙적이며 설명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자연적 질서 자체를 ‘자연의 일상성’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듯하다. 그리하여 필자는 시조 문학에서의 일상성 문제를 이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한 것이다.

傳히려문. 任 못 보아 그린 相思 病 드렀다 傳히여라. 窓을 닳고 누어시니 재
 는 정이 黃昏이라. 뒤 東山 老松 남게 金鐘달이 怨讐로다. 서른 辭說 지저귀니
 소리 소리 哀怨이라. 臥龍潭 깊은 물에 靑머구리 지저귀다. 갔다가(가득에)나
 心亂흔디 좀 못들어 어이 히리. 벼기 밀고 이리 안즈 혼즈 말노 歎息히니 長
 安城中 百萬家에 奇男子 만킨만는 怪異흔 저 妖物이 남의 丈夫 誘惑히니 前
 生에 무슨 罪로 몸을 人生 되단 말가. 남의 任 아사다가 제 품안에 길이 두니
 此生에 무슨 罪로 몸을 罪를 지엿난가. 알낙네로 낙을 숨아 奸邪이 열니는 듯,
 這 南山 絶壁上에 九年 목은 靑머구리 가슴아리 鬼神이라. 이렇듯 히는 모양
 옷소미 옷고름을 휘휘친친 감아쥐고 남의 任 아사간 것 눈 압헤 버렸는 듯,
 精神이 恍惚히여 좀 못드러 冤讐로다. 二三更에 못든 즘을 四五更에 어이 들
 니. 輾轉不寐 잠 못드러 寢不安席 되단 말가. 아모리 헤아려도 心思만 째째하
 다. 身勢를 생각히니 前程이 속절 업다. 날 갯튼 人生이야 쓸 디가 쏘雰 업다.
 百年을 定흔 配匹 남 되라고 싱겼는가. 사랑은 니저스나 스랍쫓차 니저스라.
 춤말 眞情 못 니줄 것 任의 사랑뿐이로다. 못 니줄손 任의 容貌 어이 그리 못
 보논고. 오늘이나 消息 올라 來日이나 괴별 올라, 형여 올라 기다려도 消息
 좃 永絶이라. 세월이 如流히야 二三年이 중간이라. 片紙 흔 張 안이 오니 消息
 인들 어이 알니. 一城中 흔피 잇서 咫尺 千里로다. 식벽달 구름 속에 獨宿空房
 속절업시 可憐흔 이니 一身 靑春이 느껴간다.<규원탄(閨怨嘆)>⁶⁾

작가는 알 수 없지만 목소리의 주인공이 良家 이상의 집안의 여성이라는
 점은 알 수 있다. 특히 밑줄 친 부분에서 이 여성의 남편이 가족 사회에서
 일탈하여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이 가족 사회를 일탈한 직
 접적인 계기는 새로운 여성과의 만남이다. 새로운 여성의 정체는 분명하지
 않지만, 다음 노래에서 추론할 수 있는 蓄妾의 관행을 고려할 때 妾과 같은
 여성이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妾을 쫓타 히되 妾의 說弊 들어보소
 눈에 본 종 계집은 紀綱이 紊亂히고

6) 李用基 편, 『註解樂府』(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2), 715면.

노리게 女妓妾은 凡百이 如意^호되
 中門 안 外方官妓 괴 아니 어려우며
 良家女 卜妾^호면 그 中에 낫건마는
 안마루 발딱딱과 방안에 장옷귀가
 士夫家 模樣이 저절로 글너가네
 아무리 늙고 病드러도 規模 덕히기는 正室인가 ^호노라(2828, 申獻朝)

이 노래의 작가는 正室의 의의를 규범화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하는 데서 찾고 있다. <규원탄>의 화자는 정실이지만, 정실로서의 의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누구보다 남편이 정실의 의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정실의 의의를 인정받는 일이란 다름 아닌 규범화된 가족의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원탄>의 여성은 규범화된 가족의 일상에서 일탈된 ‘의미 없는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남편은 규범화된 가족의 일상에서 일탈하고 싶은 욕망을, 아내는 규범화된 가족의 일상으로 회복하고픈 욕망을 각각 추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조 문학에 나타난 ‘치환된 가족의 일상’이 가족 사회에 보편적인 일상으로 자리하지는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상성’을 부정하고 극복하는 몸부림에서 ‘일상성’의 실체를 드러낸 셈이라고나 할까.

<규원탄>과는 달리 다음 <용부가>는 남성적 목소리를 통해 ‘치환된 가족의 일상’에서 일탈하는 여성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

흥보기도 슬타미는 저 婦人의 擧動 보소. 시집간 지 석 달만에 시집스리 심
 허다고 친정에 편지하며 시집 흥을 죽이니며, 계엄할스 식아바니 암상혈스 식
 어머니 고즈질의 쇠누의와 엄숙^호기 맛동세라. 妖惡^현 아오동세 여호갓튼 시
 앳년의 드세도다 남녀 奴僕 들며 나며 흙구덕에 남편이나 미덜더니 十伐之木
 되얏세라. 여괴 저괴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시집스리 못하켓네. 간슈병
 을 기우리며 치마 쓰고 니달기와 보짚 싹고 도망질에 오락가락 못 견디며 승
 드리나 짜라갈가. 긴 장죽이 벗시 되고 들구경 ^호야 불가 문복허기 소일이라.
 것^호로는 시름이요 속으로는 짚 싱각에 반분^씨(半粉^黛)로 일을 숨고 털썩기가

세월이라. 식부모가 경계하면 말 한 마디 지지 안코 남편이 걱정하면 뒤 바다
 맞닥수요, 들고나니 초롱군에 팔즈나 곳쳐 불가. 양반 즈랑 모도 허며 식주가
 나 허야 불가. 남문 밧 썩덕어미 텃성이 저러헌가 비워서 그러헌가. 분디 업시
 즈라야서 여긔저긔 무루맛침 쓰흠질노 세월이라. 남의 말 말전쥬와 들며는 음
 식 공논 제 조상은 부지하고 불공허기 위업힐 제, 무당 소경 푸닥거리 의복
 가지 다 니쥬고, 남편 모양 불쭈시면 삼살기 뒷다리요, 즈식 거동 불작시면 털
 버슨 술기미라. 옛장스야 썩장스야 아희 핑게 다 부르고 물네 압히 선탘품과
 씨아 압히 기지기라. 이 집 저 집 이간질과 음담패설 일습는다. 모함 좁고 쯤
 먹이기 세간은 쥬러가고 걱정은 느리간다. 치마는 절노가고 허리통이 기러간
 다. 총 업는 헌 집신에 어린 즈식 들쳐업고 혼인 장스 집집마다 음식 쥬심 일
 을 숨고 아희 쓰흠 어른 썩에 남의 죄에 밧 마치기 까닥 업시 성을 니고 의썩
 즈식 두다리며 머나리를 쫓쫓시니 아들은 홀아비라. 쌀즈식을 다러오니 남의
 집은 결단이라. 두 손뼉을 두다리며 방성터곡 괴이허다. 무신 썩에 싱트집의
 머리 싸고 드러눕기 간부 달고 다라나기 관비정속 몇 번인가. 무식헌 창성들
 아 저 거동을 즈세 보고 그른 날을 아라썩든 곳칠 기썩 힘을 쓰소. 오른 말을
 드러썩든 흥허기를 爲業혈지이다.⁷⁾

이 작품에서 남문 밖 ‘썩덕어미’는 ‘용부’의 행위의 부도덕성을 강조하기
 위해 끌어들인 관습화된 인물 형상이다. 작가의 시각에서 볼 때 ‘썩덕어미’
 의 행위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투성이다. 작가(=서술자)는 그와 같은 행위
 를 ‘惡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악행이란 규범화된 가족의 일상에서 벗
 어나는 행위, 곧 ‘일상성’이 비취진 삶의 국면을 의미한다. 서술자는 ‘용부’
 의 행위도 남문 밖 ‘썩덕어미’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함으로써 규범화된 가
 족 일상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용부’의 일상은 ‘합리성이나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의 연속이다. 하지만
 <용부가>와 같은 작품을 지은 것은 용부와 같은 일상이 적지 않은 ‘현존
 재’의 일상으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⁸⁾ ‘용부’는 규범

7) 李用基 편, 『註解 樂府』(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2), 662면.

8) 그렇다고 <용부가>에 투영된 사회 구조가 현실 사회 구조와 상동 관계를 맺고 있다고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용부가>의 생성 문맥은 작가의 ‘현실비판의식’과는 다

적인 것으로 치환된 가족의 일상을 거부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에 의해 비판되고 부정되는 ‘일상성’을 추구하고 있다. <규원탄>에서의 여성과는 상반된 일상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얼핏 보면 <규원탄>의 남편과 비슷한 듯하지만, 가족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은 갖고 있으며 여전히 가족 사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용부’는 규범화된 가족의 일상의 이면에 감추어진 ‘머느리’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반발한다. ‘용부’에게는 규범화된 가족의 일상이 오히려 의미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족 사회의 구성원 가운데 ‘머느리’는 ‘유일’하게 ‘혈연’이 아닌 ‘인연’으로 기왕의 가족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물론 개개의 가족 사회에 따라 사정이 다르지만 ‘시집살이’는 일종의 入社式과 같은 성격을 띤다. 차별에서 오는 고통을 알아야 공평한 대우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고, 나아가 가족 사회의 조화로운 질서 속에 영입될 수 있다.⁹⁾ ‘용부’가 느끼는 자신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불공정한 대우는 다음과 같은 노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마피 짝짝 아모리 운들 任이 가며 니(넌)들 가라
 밧 가는 아들 가며 뵈툼에 안즌 아기딸이 가라
 재너머 물 길너 간 며늘야기 네나 갈가 호노라(13)

시약시 식집간 날 밤의 절방그리 디엿슬 썩려 버리오니 식어미 이르기를
 물나달나 호느괴야 시약시 對答호되 식어미 아들놈이 우리집 全羅道 慶尙道
 로서 會寧 鍾城다히를 못 쓰게 썩러어 괴로쳐시니 글로 비겨 보와 낭의장(兩
 呼將)할가 호노라(1521)

첫째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용부가>의 시대 식구들의 태도와 흡사하다. ‘머늘야기’는 죽어도 좋지만 남편과 아들과 딸은 죽을 수 없다는 생각은 머느리를 차별하는 태도의 극단을 보여준다. ‘용부’의 가족 일상에서

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용부가>의 소통 문맥에 대해서는 임주탁, 「<용부가>에 나타난 여성 형상과 작가의식」,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월인, 2005), 463~480면을 참조할 것.
 9) ‘시집살이’가 유가적인 이데올로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의 일탈 욕망은 직접적으로는 이러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작품에 등장하는 ‘식어미’의 태도 또한 첫째 작품의 화자의 태도와 비슷하다. 질방구리를 대엿이나 깨버린 며느리에게 辨償을 요구하는 것은 며느리를 가족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시약시’는 “식부모가 경계하면 말 한 마디 지지” 않는 ‘용부’와 매우 흡사한 행동을 하는 듯하다. 그러나 ‘용부’와는 달리 ‘시약시’는 여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처녀성’을 앗긴 것을 들이댐으로써 가족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자 한다. ‘용부’는 가족 사회 안에 머물면서 규범화된 가족의 일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에서 일탈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 ‘시약시’는 가족 사회 안에서 규범화된 가족의 일상에 전제된 명제를 되새김으로써 그에서 벗어난 것으로 잘못 인식되는 관행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족 출신 남성 작가는 규범화된 가족의 일상에서 벗어난 행위를 일탈로 규정하고 일탈이야말로 지루하고 따분하며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한다. 그에 반해 규범화된 가족의 일상이 ‘일상성’으로 자리할 때¹⁰⁾ 구성원 개개인의 삶은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용부’의 욕망은 그러한 ‘일상성’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욕망이라 할 수도 있다. ‘일상성’을 떼 ‘일상’에 대한 시각이 사뭇 다른 셈이다. 작가의 경계와는 달리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용부’와는 다른 삶을 선택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른바 ‘登高’ 또는 ‘遊山’의 풍속이 ‘지루하고 따분한’ 가족의 일상에서 일시적으로 일탈할 수 있는 공인된 문화로 자리한 것은 사족 출신 남성들에 의해 주도된 ‘치환된 가족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일정하게 감당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치환된 가족의 일상 뒤집기’가 다양하게 시도된 셈이지만, 그러한 시도는 일시적인 것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치환된 가족의 일상’이 ‘일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감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용부가>의 작가는 ‘사족 출신 남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사족 출신 남성’의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마무리

‘사족 출신 남성’ 작가에 의해 주도된 조선조 시가 문학에서 ‘가족의 일상’은 인간과 세계의 본연의 모습(규범적 질서 관계)을 구현하는 반복적인 삶으로 치환되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양상으로 드러난 작가의식은 서양의 근대 철학에서 ‘世人的 일상성’을 비판하고 ‘현존재’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식과 일맥상통한다. 좀 확대해서 말하면, 서양의 근대철학의 담론이 우리의 중세 담론의 핵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선조 시가 작품에는 여성적 인물 형상과 여성적 목소리를 통해 치환된 가족 일상이 ‘일상성’을 띤 주체의 삶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음과 아울러, 치환된 가족 일상에서 일탈하려는 움직임이 상존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성론적이고 본질론적인 삶에 가치를 부여하려는 사족 출신 남성 작가들의 의식에 반하여, 그들이 가족의 생활에서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일상성’을 띤 삶의 국면이 오히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의식이 그러한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가? 인간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가? 물음에 대한 해답이 한결같지는 않았지만, 조선조 시가 문학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본성적이고 본질적인 삶과 의식이 조선시대의 지배 담론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지배 담론이 실제의 삶을 구속할 수는 있지만, 실제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배담론이 강화하려는 노력은 따지고 보면 실제의 삶이 지배담론에 모순된 방향으로 영위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시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만 그러한 삶의 양상을 꾀진하게 드러내기 어려울 듯하고, 그러한 어려움은 시가 문학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 글이 ‘고전문학과 일상적 삶’이라는 기획 주제의 발전적 논의에 작은 보탬 이나마 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참고문헌

沈載完 편, 『歷代時調全書』, 世宗文化社, 1972.

李用基 편, 『註解 樂府』,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92.

李賢輔, 『聳巖集』,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17.

신연우, 「日常성의 文學으로서의 時調」, 『溫知論叢』 第2輯, 溫知學會, 1996.1, 121 ~ 144면.

임주탁, 「<용부가>에 나타난 여성 형상과 작가의식」, 『조선후기 시가와 여성』, 월인, 2005, 463~480면.

_____, 「鄉歌 전통에서 본 <思母曲>의 主題」, 『韓國民族文化』 21,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2003.4, 1~19면.



Home Life and 'Allteglichkeit' Described Implicitly or Explicitly at Works of *Sijo* and *Gasa*

Yim, Ju-tak

In the Joseon *Sijo*(시조) and *Gasa*(가사) literature led by author from *Sarim*(사림) class 'Home life' is transposed into repeated life embodying the natural figure(normative order relationship) between a human being and the world.

The author's consciousness defined by this way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sense that we have to retrieve the natural figure of existence and criticize the 'Allteglichkeit(everyday-ness)' of the public in the western modern philosophy.

More deeply speaking, the discussion of the western modern philosophy is the core in the one of our medieval ages.

Undoubtedly in the Joseon *Sijo* and *Gasa* literature 'Home life' transposed through the feminine figure and voice had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the life having the 'Allteglichkeit' and also we could confirm that there was the movement to deviate from the transposed home life.

Against the male author's consciousness from *Sarim* class trying to give the value on the natural and essential life, the movement came from the consciousness that the life aspect having 'Allteglichkeit' which they dismisses as the valueless and meaningless thing in their home life is more valuable and meaningful.

Keywords: Korean literature, Korean classical poetry, *Sijo*(시조), *Gasa*(가사), home life, Allteglichkeit